

美, 北 영변 핵시설 동결시한 연장



2·13 합의 이행시한을 넘기고 지난 14일 오후 문을 닫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센터. /연합뉴스

美 “인내심 무한하지 않지만 北에 며칠 더 줄 것”

영변 핵시설 봉인·IAEA 사찰단 초청 거듭 촉구

미국은 14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기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를 넘긴 데 대해 북한측에 영변 핵시설 즉각 가동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 등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 북한측의 ‘2·13 합의’ 이행시한을 사실상 연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2·13 합의’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지도 않았으나 북한측에 언제까지 IAEA 사찰단을 초청,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라고 구체적인 시

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에서 동결된 BDA 북한자금을 해제하고 북한에 중유 5만t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초청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봉인키로 합의했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2·13 합의’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을 강조하고 BDA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에 돌입할 것임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라며 언급하지도 않았다.

순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2·13 합의’ 60일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이 ‘2·13 합의’에서 한 약속을 실행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즉각 초청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하고 봉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해제문제도 지난 10일 완전히 동결에서 풀려나 이 문제가 해결됐

“日 위안부 강제동원 재판 조서 발견”

각국 검찰관 제출, 도쿄재판서 증거자료로 채택돼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 점령지에서 부녀자를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혹사 시켰음을 입증하는 도쿄재판 당시의 검찰 심문조사 등 증거자료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자료는 도쿄재판 당시 각국 검찰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심문조사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됐던 것이다.

일본의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關東)

학원대 교수(현대사)가 도쿄대 사회

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저지른 주민·포로

살해 등 구체적 만행을 입증하기 위해

프랑스가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에는 “일본인이 프랑스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적으로 보냈다”고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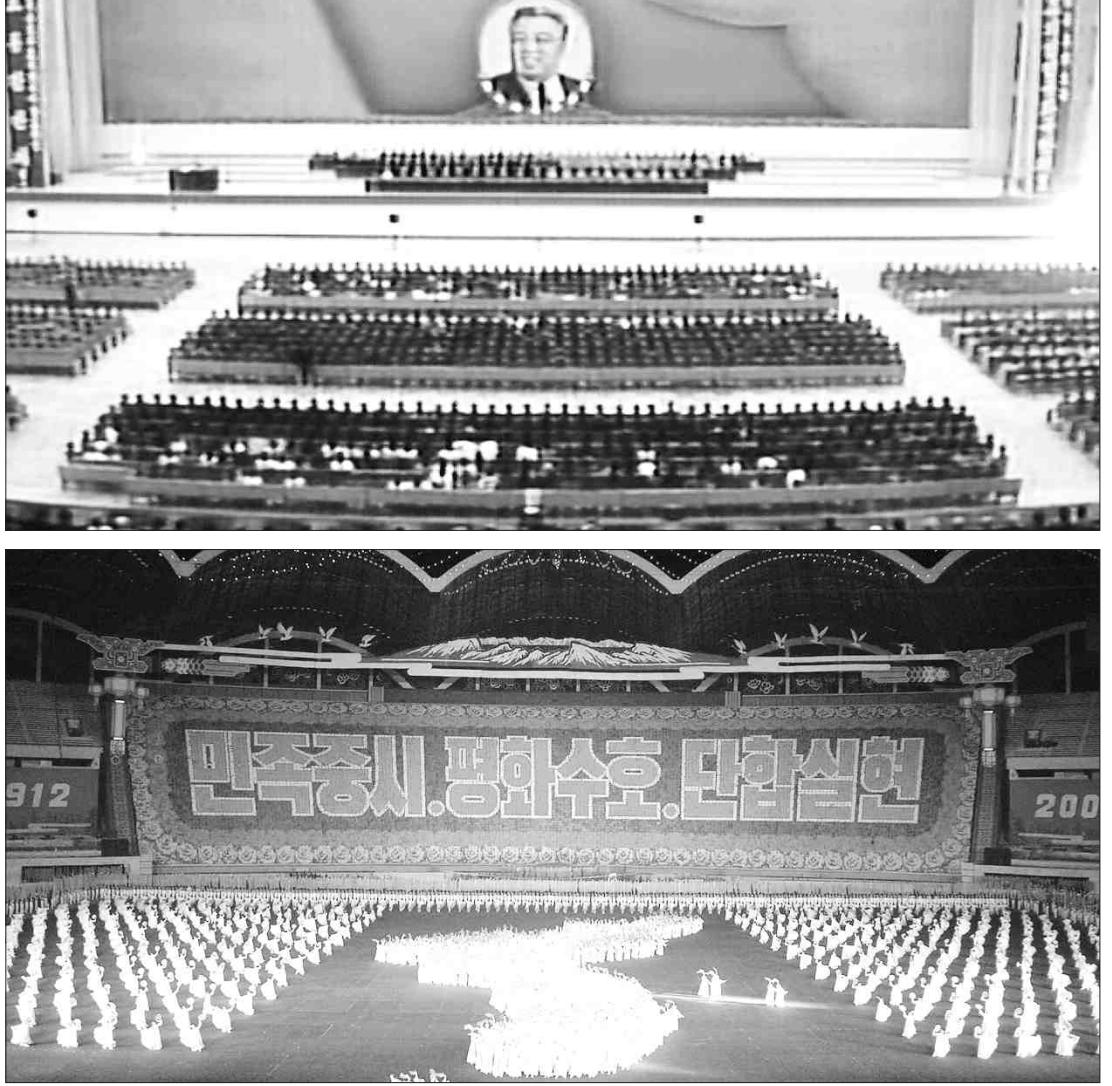
또 중국의 군사위원회 행정원이 46년 5월 27일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군이 구이린(桂林)에서 저지른 잔학 행위에 언급 “각지에서 여공을 모집하며 위안소로 보내 짐승과 같이 살피 일본군의 폭력을 위한 도구가 됐다”고 나와있다.

도쿄재판은 구이린 잔학 행위에 대한 관찰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일본군이 여공을 모집했다. 이에 일본군이 여공을 모집한다며 위안소로 보내 짐승과 같이 살피 일본군의 폭력을 위한 도구가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북한은 지금 ‘태양절’ 행사로 들썩

〈김일성 생일〉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내부 결속에 나섰다.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생일기념 중앙보고대회(사진 위)에서는 김 주석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 위원장의 업적과 체제 수호의 자신감이 집중 부각됐다.

이날 평양 5·1 경기장에서는 체계안정을 대외에 과시

하는 대집단체조 ‘아리랑’(사진 아래)이 개막, 다음달 20일까지 장기 공연에 돌입했다.

이밖에도 제9차 김일성화(花) 축전, 인민군창건 75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등 다채로운 생일기념 행사도 김 위원장을 향한 충성과 단결 촉구에 활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20C초 중국선 ‘일본식 단어’ 무분별 도입”

복무(服務) 조직(組織), 기율(紀律), 정치(政治), 혁명(革命), 당(黨), 정책(政策), 이론(理論), 철학(哲學), 원칙(原則), 건강(健康), 미술(美術) 등...

중국에서 흔히 쓰이는 이 같은 일상용어가 사실은 모두 일본본에서 만들어진 한자들이다.

중국 인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어(漢語)’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1세기 전 중국에서 무분별한 일본식 한어의 도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거꾸로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신조어도 적지 않다. 철도(鐵道), 신문(新聞), 국회(國會), 권리(權利), 주권(主權)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연합뉴스

佛 대선 D-6 막판 대혼전

사르코지 선두 속 부동층 42~47% ‘역대 최고’

로카르 前 총리, 루이얄-바이루 제휴 권고

우 후보 장-마리 르 펜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주 조사에서 부동층이 42~47%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대선전의 예측불허 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루이얄-바이루 제휴 주장 제기=사르코지의 선두 독주가 계속되자, 급기야 사회당 중진인 미셀 로카르 전(前) 총리로부터 루이얄-바이루 제휴 제안이 나왔다.

로카르는 14일 르 몽드를 통해 우파 사르코지의 승리를 막기 위해 좌와 중도가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연합뉴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드아아~ **제주출발, 노동(노동)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제에슬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 일정 · 1일차: 목포국제어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 출발-호텔 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호텔 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7:30) 출발 (단, 일요일은 16:30 출발)

★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 토요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항내역: 용복선박, 슬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오픈기념: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활히 10,500+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향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